Jeju Peace Institute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발행인 | 김봉현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 Tel: 064)735-6500 · Fax: 064)738-6522 · www.jpi.or.kr

No. 2018-08

중국의 대한국 인식 변화와 우리의 정책 대응 방안

김상규 (한양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연구교수)

한국과 중국은 문화적인 유사성, 지리적인 근접성, 역사적인 중첩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어떤 국가관계보다도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전쟁 이후 양국 관계는 단절되었다. 하지만 냉전의 종식이 가져온 군사적 위협의 감소는 국제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주변국들의 관계 정상화를 촉진하였다. 한국은 북방정책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을 목표로, 중국은 개혁 개방 노선을 흔들림 없이 성공시키기 위해 새로운 협력이 필요하였다. 이 같은 상호 간 전략적 선택은 1992년 국교 정상화를 이루었고, 이후 무역과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견고한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만들었다.

경제 분야에서 양국 관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그와 동시에 상호 간의 마찰과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역사문화 영역의 정체성 문제가 양국의 부정적 인식을 점점 더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한 것이다. 더 나아가 국가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사드 배치 문제는 한중 수교의 역사를 사상누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현재 한중 사이의 부정적 인식의 팽배는 향후 양국 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중국은 정치·경제적으로 여전히 한반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이익상관자이다. 따라서 표면적 사안뿐만 아니라 잠재적 상황까지도 포괄하는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에 한중 수교 이후 나타난 중국의 대한국 인식 변화의 근본적 기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 정책을 고찰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연구이다.

목 차

1. 중국의 대한국 인식 변곡점
   1) 한중 수교 : 기존 인식의 전환과 우호 인식의 형성
   2) 중국의 부상 : 우호적 인식의 전환과 부정적 인식의 형성
   3) 강대국화 : 상대적 약소국 중국의 인식 모순
2. 중국의 대한국 인식 변화와 그 함의
3. 긍정적 인식 형성을 위한 대응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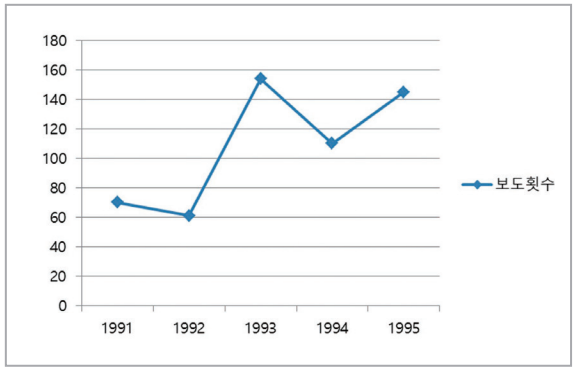
1. 중국의 대한국 인식 변곡점

1) 한중 수교 : 기존 인식의 전환과 우호 인식의 형성

○ 문화체육 요인에 의한 인식 변화

- 수교 초반인 1991년 북경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남한(42%)과 북한(40%)에 대한 호감도가 비슷함. 그러나 15~24세, 24~34세에서의 비율은 북한보다 남한에 대한 호감도가 더 높게 나와 전후(戰後) 세대가 전쟁 세대보다는 좀 더 남한에 대한 호감도가 높음
-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 한국이 보여준 역량이 국가의 이미지를 확립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왔다고 추론할 수 있음. 86아시안게임이나 88서울올림픽 같은 국제적 스포츠 행사나 한중 간 경제 교류 활동을 매개로 한국에 대한 정보 유입과 관련 인식 형성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최대 발행 부수 인민일보(人民日報)는 88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긍정적인 보도를 게재하는 한편 한국 상품에 대한 상업광고를 싣기 시작. 인민일보의 보도 내용을 조사한 결과 한국 관련 보도는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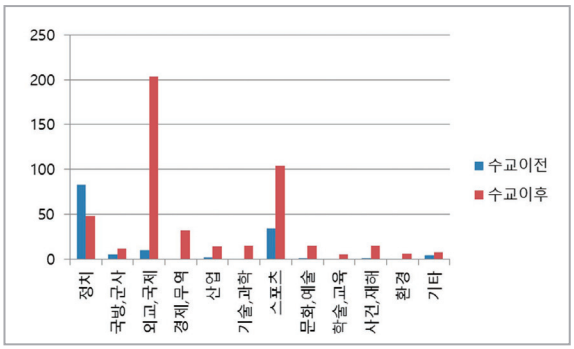
[그림 1] 인민일보의 한국 관련 보도 횟수[1)]



- 인민일보 보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수교 이전과 달리 한국과 관련해 전 분야에 걸쳐 보도되었고, 특히 외교, 국제, 스포츠, 경제무역 등 국가 간의 상호 교류에 관한 보도가 급격히 증가하였음

1) '한국'을 주제어로 긍정적인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인민일보 DB에서 보도된 뉴스를 키워드 분석한 결과임.
http://rmrb.lib.tsinghua.edu.cn:918/WEB/index2.html

[그림 2] 한중 수교 전후의 인민일보 보도주제 비교분석[2)]



수교 초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북한과 비슷하고 일본보다 낮게 나타나

- 그러나 북한을 우방이라고 생각한다는 비율이 68.2%로 초기 한국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과거의 냉전 시기의 정치적 이념과 적대적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음. 한국보다 먼저 수교를 맺은 일본은 한국보다 인지도가 높고 우호적 인식의 비율이 높음
- 1995년 중국 여론 조사 기구인 영점조사(零点調査)의 결과를 보면, 일본 남성 및 여성의 호감도 순위는 각각 3위(7.5%), 2위(28.7%)지만, 한국 남성과 여성의 호감도 순위는 각각 10위(0.8%), 5위(2.4%)를 차지. 수교 초기 중국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는 일본보다 낮게 나타남[3)]
- 1997년 대흥기획 마케팅 전략 연구소가 시행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57.3%의 중국인들은 '한국을 좋아하는 정도가 보통이다', 27.7%는 '한국을 조금 좋아한다.', 2.9%는 '한국을 아주 좋아한다.'라고 대답하고 있어 여전히 수교 초기에는 인식 형성이 완전하게 성립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음[4)]
- 그러나 한국에 대한 정보 유입이 늘어나면서 우호적 인식이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증명함. 특히 중국 TV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가 높은 인기를 얻게 되고[5)], 그와 동시에 한국의 K-POP 등 한국 가수들의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중국 청년층 역시 한국 문화에 대해 열광하게 됨. 드라마, 음악 등 문화적 요인이 한국에 대한 친밀감과 호감도를 상승시킴

2) 황해연, 「인민일보의 북한과 남한 관련 보도 비교연구: 1972-2012년」, (이화여자대학교, 2014), 81-82쪽.

3) 零点調査, "國家印象", http://www.3see.com/free-report/reports/2003/08/05/3326.html (검색일 2018.12.5.)

4) 왕샤오링(王曉玲), 「중국인들 마음속의 한국 이미지」(북경: 민족출판사, 2009), 45쪽.

5)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방영되어 4%의 시청률을 기록. 방송사와 채널 등 수천 개가 넘는 상황에서 시청률 1%를 넘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 당시 상황에 비추어보더라도 시청률 4%라는 결과는 해당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고 영향력이 대단했는지 알 수 있음.

- 문화에 기초한 정서적 교감이 정치적 이유로 단절되었던 양국 사이의 물리적 시간 공백을 극복할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함. 문화적 유사성은 호감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 요인이며 문화적으로 유사한 국가는 서로 선호하고 신뢰하게 해 줌[6]. 1999년 베이징 청년보(北京青年報)는 이러한 문화적 조류에 대해 '한류(韓流)'라 칭하였고, 이후 한국 음식과 의류 등 점점 여러 방면에서 한류의 영향력이 확대하기 시작
- 2000년 시행한 한일 공동 여론 조사에서도 '한국이 좋다'고 대답한 비율이 중국 35%, 미국 23%, 일본 20% 순으로 한국을 선택한 중국인의 비율이 제일 높게 나옴. 중국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38.22%가 '매우 가고 싶다', 61.78%가 '가보고 싶은 나라'로 한국을 선택하는 등 우호적인 비율이 상당히 높아짐[7]
- 2003년 성균관대학교 국가 브랜드 경영 연구소가 11개 국가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중국인 응답자의 48.3%가 '한국' 하면 생각나는 것으로 문화를 선택. 문화 요소 중에서는 드라마가 21.4%, 패션이 18.3%, 음식이 17.8%를 차지
- 한 · 중 · 일 3국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보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매우 호감'이 7.7%, '대체로 호감'이 53.4%로 조사됨. 해당 연구는 외국 TV 드라마 시청 빈도와 해당 국가에 대한 호감 정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8]
- 이 같은 일련의 결과는 수교 초기부터 약 10여 년간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 형성에 문화, 스포츠 요인이 가장 강력한 인식 형성 기제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보여줌

수교 이후 약 10여 년간 문화와 스포츠가 가장 강력한 인식 형성기제로 작용

○ 경제적 관계와 상호 인식에 관한 영향력

-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경제적 요인이 문화적 요인보다 그리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임. 2003년 말,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 2004년 말에는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 되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

6) 다음의 연구를 참고. D. Byrne, The Attraction Paradigm (New York: Academic Press, 1971), Inglehart, Ronald. "Trust between nations: primordial ties, societal lear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Samuel Huntington, The Clash of Culture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Touchstone, 1996)

7) 연합뉴스, "중국인 한국에 가고 싶다", 2001년 6월 12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0080069 (검색일:2018.12.5)

8) 디지털 타임스, "드라마가 한국 호감도 높여",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4112602010716700001 (검색일:2018.12.5)

히 중요한 국가 관계를 이루고 있었음

- 그러나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과의 경제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있음. 한국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지만, 실질적 무역량의 증가와 경제적 관계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상위를 차지한 국가보다 한국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었음[표 1]

[표 1] 중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단위: %)[9]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미국	84.4	미국	81.8	미국	77.5	미국	71.5	미국	69.2
일본	46.4	일본	48.6	일본	44.7	일본	38.1	일본	29.2
러시아	15.8	러시아	12.4	러시아	17	러시아	16.4	러시아	21.6
독일	8.5	한국	6	한국	11.8	한국	10.5	한국	13.4
싱가포르	7.6	독일	5.1	독일	5.5	독일	9	독일	11
영국	6.8	영국	5.6	영국	5.8	영국	6	프랑스	10.4
한국	6.7	싱가포르	4.1	싱가포르	4.7	싱가포르	5.3	영국	7.7
프랑스	4.2	프랑스	2.6	프랑스	4	프랑스	6.5	호주	5.1
호주	4	호주	2.5	호주	3.9	호주	4.7	싱가포르	5
북한	1.6	북한	1.8	북한	4.4	북한	3.6	북한	3.3

- 당시 중국인들은 경제적인 사안은 아주 중요하며, 경제무역 영역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음. “향후 5년 중국에 가장 필수적으로 제정할 외교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37.6%가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무역 교류를 더욱 증가시켜야 한다.”라고 응답. 이는 대만과의 통일 문제(30.6%)보다 7%가 높은 결과였음[10]

경제적 협력관계를 지렛대로 삼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아

- 이 같은 결과는 갈등 발생 시, 우리가 중국에 경제적 협력 관계를 지렛대로 삼아 갈등을 해결할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바꾸어 말하면, 중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제 상대국이지만, 한국은 중국에 최우선 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든 그 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
- 실제로 과거 마늘 파동(2000년)과 김치 파동(2005)을 비롯해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한국에 강력한 보복 조치를 한 것은 중국인들이 가진 이 같은 인식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9) 零点調查, “中國市民眼目中的世界(2001-2005)”, http://www.3see.com/free-report/reports/2006/03/22/6269.html(검색일: 2018.12.11.).

10) 零点調查, “中國市民眼目中的世界(2001-2005)”, http://www.3see.com/free-report/reports/2006/03/22/6269.html(검색일: 2018.12.11.).

- 한중 수교가 맺어진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양국의 경제적 이익 실현에 대해 기대감이 컸기 때문임. 그러나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우호적 인식 형성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음

한국이 중국문화유산을 강탈한다는 보도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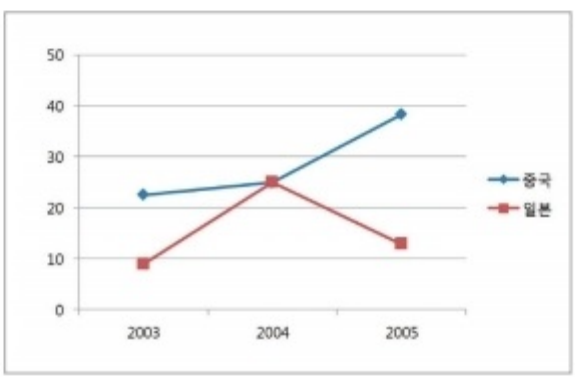
2) 중국의 부상 : 우호적 인식의 전환과 부정적 인식의 형성

○ 역사 정체성 문제의 갈등과 협력의 이중주

- 동북공정으로 고구려 역사 문제가 불거진 이후, 중국의 대한국 인식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음. 한국은 동북공정을 역사 정체성 문제로 인식하였으나 중국은 지방 정부에서 수행하는 연구로 치부하여 양국 간 인식의 격차가 존재
- 강릉 단오제의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문제 역시 중국인의 대한국 인식은 악화 기제로 작용함. 한의학, 중의학 논쟁을 비롯해 한국이 중국의 문화유산을 강탈한다는 식의 보도가 증가하면서 인터넷에서 유언비어가 대량 생산. 중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짐
- 그런데도 2007년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시행한 한·중·일 3국 인식 조사에서 중국인들은 6.6%만이 '양국 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답함. 한국일보, 일본 요미우리신문, 중국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주간 '랴오왕둥팡'(瞭望東方)이 공동으로 시행한 한 · 중 · 일 공동여론조사에서도 중국인 응답자의 74.1%가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다', 73.1%가 '한국을 신뢰한다.'라고 답을 하는 등 상당히 이중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
- 이중적 인식의 원인은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 때문임. 2005년도 들어서면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일시적으로 우호적으로 변함. 한국 역시 고구려 역사 문제로 중국에 대해 호감도가 줄곧 하락하던 것과는 달리 여론조사 결과에서 일시적으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임
- 당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독도와 위안부 등 영토 문제와 과거 역사 문제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센카쿠 열도 문제가 지속하여 국가 간 갈등 국면을 조장하고 있었음. 일본의 역사 교과서나 영토 문제가 불거질 경우, 한중간에 갈등이 생겨 부정적인 인식의 흐름이 생기더라도 두 나라의 적대적이고 비우호적인 태도는 모두 일본에 대한 반감으로 변환되어 양국 서로 우호적 인식 상태로 전환
- 일본이 조장하는 역사 갈등과 영토 문제의 상수가 독립변수로 작용하여 한중 양국의 우호적 인식 형성의 종속변수로 작용함.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과 후소샤(扶桑社) 역사 왜곡 교과서 문제가 불거지고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하면서 한중 양국의 반일 감정은 상승

- 이 시기 한국의 여론조사를 보면, '한반도 주변 국가 중 가장 호감이 가는 국가'는 '중국' 38.3%, '미국' 37.2%, '일본' 12.9%. 2004년 8월, 중국의 고구려 역사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던 시기, 동일 기관에서 시행한 여론 조사 결과 역시 중국이 24.9%, 일본은 25%. 중국은 전년 대비 13.4%가 상승한 수치이고 일본은 12.1%가 하락한 수치([그림 3] 참조)
- 같은 설문 조사에서 중국인의 75%, 일본인의 61%가 '중일 관계가 잘되지 않고 있다'라고 답했고, 중국인의 64%와 일본인의 28%가 상대국을 '싫다'라고 답했는데, 이 수치는 동일 기관에서 시행한 결과 중 역대 최고치임. 또 한국인의 94%와 일본인의 61%가 '한일관계가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했고, 양국 국민 모두 상대국에 대해 '싫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인 63%, 일본인 22%이었는데, 이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었음[11]

[그림 3] 일본과 중국에 대한 호감도 변화[12]



2008년 이후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

○ 중국의 부상과 중화의식의 고양

- 2008년부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증가하고 우호적 인식은 하락하는 추세로 들어서는데, 이 시기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한층 강화되는 시기와 맞물리고 있음. 2008년 9월,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글로벌 경제 위기를 초래하였고, 중국은 미국을 대신해 세계 경제를 이끌며 경제 대국으로 그 지위를 확고히 다져나감
- 특히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중국인의 국민적 자긍심이 상승한 상황에서 경제적 요인까지 더해져 민족적 자부심은 더욱 고양되었음.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한·중·일 3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

11) 동아일보, '韓 63%-日 22% "상대국 싫다"…20년 來 최악', 2005년 4월 27일, http://news. 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296054
(검색일: 2018.1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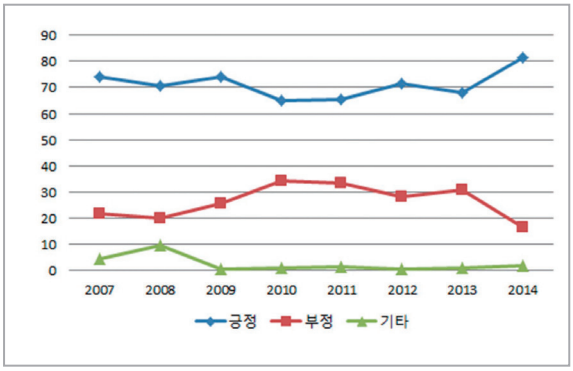
12)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동향과 분석 43호」, (서울: 한국사회여론연구소, 2005), 36쪽.

면, '자기 나라에 태어난 것이 자랑스러운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중국이 93.6%로 가장 높은 비율. 일본은 89.4%, 한국이 86.2%를 차지하고 있음[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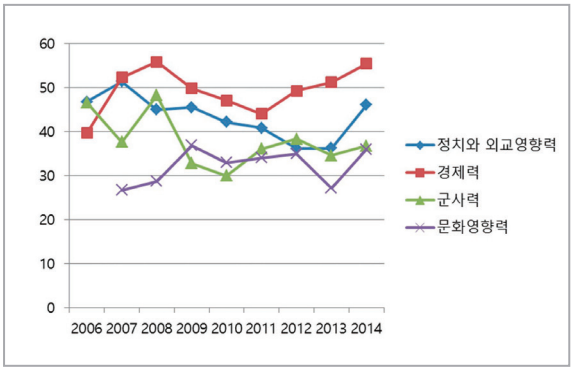
베이징 올림픽과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중화의식이 고양되어

- 중국의 국력과 경제력에 관한 중국인들의 인식, 즉, 중국이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음([그림 4] 참조). 중국의 강대국화 요인은 경제력에 기반을 둔 것이라는 인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결국, 경제적 성장이 중국인들의 자신감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을 극명하게 보여줌[그림 5]

[그림 4] 중국은 이미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가?[14]



[그림 5] 중국이 이미 세계적 강국으로서 갖춘 조건은 무엇인가?[15]



13) "멀어져가는 한·중·일. 부정적 인식 악화", 「연합뉴스」, 2008년 11월 27일, http://news. 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2385121(검색일 2018년 12월 15일).

14) 環球輿情調查中心, 中國民意調查, 第四輯, (北京: 人民日報出版社, 2015), p18.

15) Ibid., p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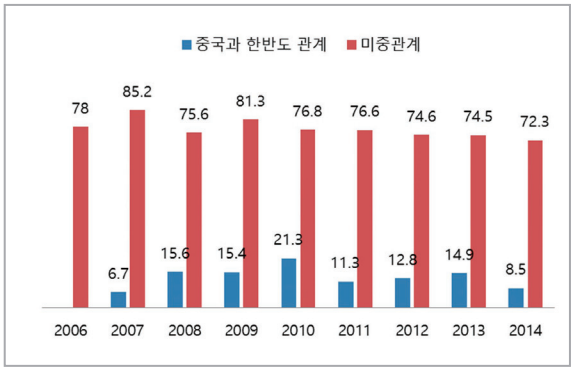
3) 강대국화 : 상대적 약소국 중국의 인식 모순

○ 외부 요인에 의한 중국의 인식 변화

-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반감의 원인에는 양자 관계로 인한 갈등보다 외부 요인에 의한 갈등 요인이 존재함. 가장 핵심적인 외부 요인은 미국 요인으로 한중 관계에서 중국인의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독립변수. 북핵 문제는 한반도 위기를 조성하는 상수이자, 한중 관계의 독립변수임
- 중국의 입장에서 두 요인은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북핵 문제를 인식할 수밖에 없으므로 둘이면서 하나인 문제라고 봐도 무방함. 한미관계가 강화하는 것이 중국에 전략적 부담감으로 작용
- 중국인 역시 이 문제에 관한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음.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한미관계가 중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응답은 20.3%에 불과하지만 54.1%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하고 있음. 이 같은 결과는 중국인이 한미 양국의 관계 강화에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16]
- 실제로 중국은 한중 관계를 위시한 한반도 문제보다 미·중 관계에 대해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는 중국인의 대외관계 인식에서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남. "어떤 관계가 중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가?"라는 설문에 평균 70%가 넘는 비율로 '미·중 관계'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답하고 있는 반면, 한중 관계는 남북한을 모두 아우르는 한반도 문제 안에서 인식하고 있음([그림 6] 참조)

미국요인은 한중관계에서 중국인의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독립변수

[그림 6] 중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관계는 무엇인가?[17]



16) 전성흥. 「중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와 한중관계의 실질적 개선 방안」,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 총서, 2011), 21쪽.

17) 環球輿情調查中心, 中國民意調查, 第四輯, (北京: 人民日報出版社, 2015), p5.

- 한중 관계는 한중 양국의 양자 관계보다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중국의 전략적 가치 판단과 아울러 한반도 문제로 설정되어 있음. 즉, 한미관계라는 대외적 독립변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종속변수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 실제로 노무현 정부 시절 한중 관계의 강화가 한미관계의 약화를 가져왔고, 이명박 정부 시절 한중 관계가 악화한 것 역시 한미관계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음. 이는 집권당의 성격과 그에 따른 정책 변화에 따라서 한미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물론 박근혜 정부는 집권당의 성격이 이전 정부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초반 양국 관계는 상당히 우호적이었음. 하지만 대외적 요인의 변화 때문에 한중 관계가 가까워졌다기보다 두 정상의 개인적 친분, 한국 지도자의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 및 한국 문화 콘텐츠의 인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2014년 중국 칭화대학(清華大學)에서 중국어 연설을 한 것을 비롯해 2015년 인민일보에 신년인사 동영상을 게재한 것은 중국 대중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이벤트로,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효과적인 외교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음[18)]

○불신(不信)과 불안 인식의 표출

- 그러나 단기적이고 가변적인 방법은 본질적인 한중 관계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함. 중국이 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우호적인 인식이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안보, 특히 안보 위협이 되는 미국 요인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

중국의 가장 큰 고민은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변화

- 중국의 가장 큰 고민은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 변화임. 미국은 2000년대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중동 지역에 집중해 왔음. 하지만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회기(Pivot to Asia)' 전략에 이은 '아시아 재균형(Asia Rebalancing)' 정책을 시행
- 역외 균형자(offshore balancer) 역할을 하던 미국이 역내 경쟁자로 진입하여 중국을 압박했기 때문에 역내 변화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음. 즉, 중국을 겨냥한 미국 대외정책의 수정, 이로 인한 동북아 역내 동맹국의 긴밀한 관계 조성은 중국의 대외적 인식 변화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음
-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맞물려 한미, 미일 양국 간의 군사적 관계는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전략적

18) '대장금'이 중국에서 인기를 끈 것이 한국 호감도를 높였듯,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의 인기 또한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상승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음.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음. 사실 중국은 동북아, 특히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과거부터 줄곧 위협 인식을 표하며 부정적 견해를 보여 왔음

-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과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및 천안함 사건으로 긴장이 고조되어 한미 간 군사 협력이 강화되고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 실시. 당시 중국 정부는 "외국 군용함기가 서해 및 중국 인근 연해에서 중국의 안전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단호히 반대한다."라며 "해당 당사국은 냉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지역에 긴장 국면을 만들지 말라"는 강경한 견해를 밝힘[19]. 더 나아가 한미 군사 훈련이 시행되는 시기에 중국 역시 집중적으로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등 한미 연합훈련을 상당히 의식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함(〈표 2 참조〉)

〈표 2〉 한미 양국과 중국의 군사 훈련 실시 내용(2010년 사례)

한미 양국의 군사훈련	중국의 군사 대응 훈련
한미 연합 군사훈련(7.16)	산동에서 신형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연습 실시(7.25)
한미 해상연합훈련(7.25)	
한미 연합 잠수함 훈련(7.28)	인민해방군 서해 부근 대규모 실전 군사 훈련 및 실탄 훈련 실시(7.28)
	인민해방군방공부대 산동성과 하남성에서 연합훈련 실시 (8.2)
	방공부대 대규모 연합훈련 실시(8.3)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합 훈련실시(8.16)	제남 작전구역 인민해방군 첫 연합훈련 실시 (8.12)
한미 연합 훈련(11.28)	심양 군사구역 훈련(11.29)
	북경 군사구역과 제남 군사구역 훈련 (11.30)

자료 출처: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필자가 작성함

- 반면, 2017년 미국, 일본, 인도 3개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한 말라바 합동군사훈련(Malabar Naval Exercise)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주목할 만한 반응을 보여주지 않음. 그러나 지금도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해 실시하는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는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음
- 중국이 북핵 문제에 관해 줄기차게 주장하는 쌍잠정(雙暫停)과 쌍궤병행(雙軌竝行)의 전략 뒤에는 미국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상대적 약소국의 모습이 내재하여 있음.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한반도 내에서 실시되는 미국의 군사 행동에 대해 86.7%, 동아시아에서의 미군 주둔에

쌍잠정과 쌍궤병행의 전략뒤에는미국을 두려워하는 상대적 약소국의 모습이 내재

19)中華人民共和國駐牙賣加大使館, http://ae.china-embassy.org/chn/wjbfyrth/t714888.htm (검색일: 2018.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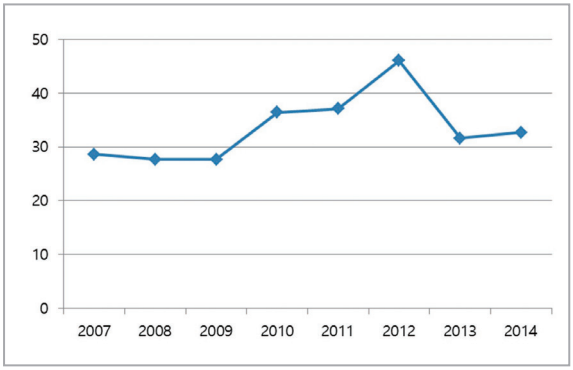
대해서는 81.7%의 응답자들이 반대하고 있으며[20], 또한, 55.6%의 응답자는 미국이 한반도 위기를 지속해서 조성하는 주요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음[21]

- 중국은 북핵 문제가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위기는 근본적으로 한미 양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의 부산물로 보고 있음. 중국 외교부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은 "사드 배치는 한반도에서의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역 전략 균형을 깨뜨리는 것은 물론 동북아 지역 국가의 안보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말고 사드 배치를 그만두고 관련 시설을 철수하라"라고 강력한 입장을 고수함[22]

사드 배치를 북핵문제 해결과 무관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한 결과물로 인식

- 이는 결국 사드 배치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한 결과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 중국은 사드 배치가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한국 측의 입장에 대해서 '북핵을 방어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 이후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고 안보 협력을 통해 중국을 억제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려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그림 7] 참조)

[그림 7] 미국이 전략적 중국 억제를 하고 있다는 인식 비율 변화[23]



20) 「中國日報」, '2010中国人眼中的美國系列調查', http://www.chinadaily.com.cn/hqjs/2011-01/17/content_11866720.htm (검색일: 2018.12.10.).

21) 環球輿情調查中心, 中國民意調查, (北京:人民日報出版社, 2012), pp90-91.

22)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http://www.fmprc.gov.cn/web/fyrbt_673021/jzhsl_673025/ t1490562.shtml (검색일: 2018.12.14.).

23) 環球輿情中心, 中國民意調查, 第四輯, (北京:人民日報出版社, 2015), p9.

- 사드 배치는 북핵 방어를 위해 설치된 것이 아닌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무기 체계이며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기초한 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강대국인 미국에 대응하기보다 상대적 약소국인 한국에 자신의 힘을 투사함. 결국, 이 같은 행위 자체가 미국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 모순의 방증이며, 저변에 깔린 불신과 불안감의 다름 아님

2. 중국의 대한국 인식 변화와 그 함의

- 한중 수교는 양국이 추구하는 고도의 국가이익에 부합하여 이루어진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었음. 교류가 증대되면서 상대국에 관한 새로운 인식의 틀이 형성될 기회가 만들어진 점 역시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성립하는데 영향을 주었음
- 그러나 수천 년의 역사적 관계는 물론 한국 전쟁 등 현대사의 반목과 적대적 인식의 전환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음을 노정함. 체제와 이념의 차이는 물론 동북공정 문제를 비롯해 사드 문제 등, 한중 양국 사이에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정체성과 연관된 의식적 문제이고 우리가 종속변수로 작용하는 구조적인 문제임
- 사드 문제 이후 중국이 보여준 일련의 조치들은 수교 초기 주로 문화적 요인에 기초한 우호적 인식 형성, 밀접한 경제적 관계임에도 양국 관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음. 중국이 우선시하는 핵심이익 앞에서 단순한 현실적 이익만을 앞세운 관계 설정은 그 한계가 명백함
- 따라서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이 중국에 가졌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 한국은 그동안 중국에 대한 접근을 미·중의 파워게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조력자, 경제적 이익 실현의 대상으로만 접근하여 분석하고 이용하려 한 것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음
- 즉, 중국인의 근본적인 인식을 살피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무엇을 중요시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함. 한중 관계는 지금까지 이해(利害)관계를 맺고 있었음. 그러나 이제는 이해(理解)관계를 형성해나가야 함.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중국이 왜 그렇게 하는지, 무엇을 중시하는지에 대한 실제적 분석이 필요함
- 특히 중국인은 미국의 영향력이 한반도에서 확대되는 것을 상당한 위기로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됨. 불신과 불안감 등 중국인이 갖고 있는 위기 인식을 상쇄시키고 희석할 새로운 차원의 전략적 논의를 시도할 필요가 있음

한중관계는 지금까지의 利害 관계에서 앞으로는 理解관계로 형성해 가야

3. 긍정적 인식 형성을 위한 대응 방안

○ 일반 대중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

- 중국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 피해 의식, 주관적 저평가에 관한 자각이 필요함. 한국은 과거 중국의 영향을 받던 조공 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체제와 경제력을 가진 강한 중견 국가임. 관련 문제에 관한 유연한 사고와 국제 시민으로서의 통합적인 시야를 갖는 것이 중요함. 중국의 민족주의에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교육 실현을 통한 포용국가로서의 면모를 명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음
- 중국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이해의 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민족주의적인 시각에서 맞대응하는 방식이 아닌 중국의 실제적인 국가역량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중국의 체제를 이해시키고 중국인들의 현 상황을 파악해야 함. 서구의 시각에 기초하여 중국의 국력을 과대포장하거나, 의도를 오판하여 중국의 행위에 대한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함
- 대부분의 중국인 인식과 관련한 연구의 결론이나 전망, 갈등을 해결할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보면, 대부분 한국이 비교 우위에 있는 드라마, K-pop 등의 분야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물론 이 같은 방법이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 형성과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일견 타당함

중국의 발전과 중화의식의 고양은 한국의 문화적 자부심과 충돌하는 '양날의 칼'

- 하지만 중국 정부의 정책, 중국 사회의 발전, 중국인의 의식적인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의 방법론을 답습하고 있음. 중국 사회의 발전, 중국인의 중화의식 고양(高揚)이 한국인의 문화적 자부심과 충돌하는 '양날의 칼'이 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함
- 중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달은 온, 오프라인을 넘어서 거대한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형성되고 있음. 다양한 콘텐츠 플랫폼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향성의 문화 유입이나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음. 중국의 이해를 도모하고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쌍방향성 교류 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해야 함. 역사문화 방면의 상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지 진출을 통한 한국의 문화가 시나브로 연착륙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이 시급함

○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

-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지식 교류의 플랫폼을 구성해야 함. 대부분의 학술연구나 정부 차원에서의 연구 활동은 명망 있는 학자들을 초대하거나 중국의 싱크탱크를 초대하여 의견을 듣는 프로그램을 운용함. 그러나 이는 효율성보다 상징적인 활동에 국한되어 있음. 향후 정책 결정에 관여할 가

능성이 있는 신진학자들을 발굴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속적 교류 접촉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신진학자들의 토론회나 대학이 진행하는 학술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 좀 더 낮은 곳에서부터 토대를 다져야 함

- 공공외교의 측면에서 과거 외교부에서 시행한 파워 블로거(왕홍)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중국인들이 우호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단기간의 전시성 활동만으로는 중국인들의 우호적 인식 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중국인들에게 교육과 시설 등을 지원한 한국기업의 캠페인 형식의 방법론도 시도해볼 필요가 있음
- 사드 갈등 이후, 한국 내부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재고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하였음. 이 같은 생각의 기저에는 여전히 경제적 관점,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국을 바라본다는 사실이 내재하여 있음. 중국을 이익 실현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닌 상생과 공존의 대상으로 본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음
- 향후 한국은 미·중 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거나 스스로 정책을 선택해야 할 시기가 올 것임. 미·중은 우리에게 선악, 시비의 대상이 아님. 사드 문제 같은 특수한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지만, 설령 비슷한 상황이 다시 온다면 한국의 국가이익 실현에 기초해 명확한 의사 표시가 필요한, 혹은 모호한 태도를 보일 사안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함
- 한중 양국 사이에는 과거의 역사나 문화적인 정체성 문제나 국가안보와의 갈등은 물론 환경이나 사이버 안보 등 비전통 안보 영역에서도 상호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할 가능성이 큼. 환경과 사이버 영역의 문제는 양국 사이의 감정적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음. 특히 중국의 환경 문제는 중국인들도 경각심을 갖고 중국 정부의 해결책을 촉구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관련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공공외교의 차원에서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사전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함
-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반드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것은 바로 중국과 관련한 자극적이고 편협한 시각의 언론 보도 행태임. 이 같은 언론 보도는 부정적인 인식 확산의 가장 선봉에 서 있고 그 피해가 심각함. 상호 소통과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분야임. 중국의 보도 행태와는 별개로 우리는 객관적이고 사실에 기초한 보도 행태를 지향해야 중국의 행태에도 강력하고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음

환경이나 사이버 안보 등 비전통 안보영역에서도 상호 부정적 인식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

상기 보고서의 내용은 중소연구 41권 4호에 게재된 논문을 JPI정책 포럼 형식에 맞게 정책 대응 방안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재수록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 저자 약력

김상규

現 한양대학교 중국 문제 연구소 연구교수(한양대학교 박사 후 연구원).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 학사, 국제학(중국학)석사, 중국 칭화대학 국제정치학 박사.
파리 정치대학 교환연구원 역임.
주요 연구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중국의 대외정책 변인 재고찰-시진핑 시대를 중심으로(2018), 한·중·일 3국의 위기와 협력에 관한 연구-비전통 안보 영역의 이슈를 중심으로(2018), 월경성 환경오염 문제에 관한 한중 인식 차이와 협력 분석: 평화적 갈등 해결을 중심으로(2018), 중국인의 대한국 인식 변화와 사드(2017), 북핵 문제에 관한 중국 학계의 논쟁 분석(2017), 韓中供应链安全合作探析-以非传统安全的视角为主(2015), 중국 국제관계학계의 역사와 내부 논의에 관한 분석(2015), 日本政治右倾化对中国公众对日情感的影响: 以信息沟通分析为中心(2013) 등 다수.

기획 및 감수: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황지나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